

“예쁜데 연기도 잘한다는 이런 칭찬 계속 듣고 싶어”



최근 종영작 ‘폼위있는 그녀’

김희선, 명품 연기 선보여 화제

“가끔 제 모습 튀어 나왔죠”

“시청률이 9% 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전 바로 체감을 못 했어요. 저는 시청률 30~40%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웃음)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 ‘와, 40대 여배우들이서 해냈구나’ 하고 뿌듯했죠.” 인기리에 종영한 JTBC 금드라마 ‘폼위있는 그녀’에서 폼위의 결정체 우아진을 연기한 배우 김희선(40·사진)을 최근 서울 논현동에서 만났다. 발랄한 하이톤으로 수다를 쏟아내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극 중 시아버지 안태동 회장(김용건 분) 앞에서 트로트 맞춰 막춤을 선보인 아진의 모습이 겹쳤다. 김희선은 아진의 곳곳에 자신의 모습이 묻어있다고 귀띔했다. “중간중간 ‘진짜 김희선’이 많이 나왔어요. 의류회사와 계약하고 나서 방향 뒀는 장면도 그랬고요. 백미경 작가도 ‘그 장면은 아진이 아니라 김희선’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봐줄만했어. 좋았어’라고 해주니 기분 좋더라고요. 아진이 너무 꽃꽂이만 했으면 연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가끔 제 모습이 나와서 인간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아진은 성희(이태임)와 바람을 피운 재석(정상훈)과 이훈,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도 오히려 진정한 폼위가 된지를 보여줬다.

김희선은 “아진의 폼위를 완성해준 것은 결국 복자(김선아)라고 생각한다”며 “아진도 처음에는 속물근성이 있었지만 욕심을 그칠 줄 모르는 복자를 탄산지식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안태동 회장에게도 ‘재석과 살기에는 내가 아깝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흡을 맞춘 정상훈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배우가 연기했으면 밍기만 했을 텐데 상훈 오빠가 해서 좀 동정도 느껴졌다. ‘어이구, 저 머저리가 밥은 먹고 다니냐’ 하고 걱정되는 심리랄까”라고 애정을 표현했다.

자신과 함께 드라마의 한 축을 담당한 김선아에

대해서는 “17년 전 둘 다 신인일 때 드라마 ‘세상 끝까지’에서 만났던 추억이 있다”며 “과거에는 서로 예쁘게 나오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서로 잘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연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 날로 젊어지는 김희선이지만, 그도 어느덧 데뷔 25년 차다. 1993년 CF 모델로 데뷔해 ‘비천무’(2000) 등 영화와 ‘미스터리’(1998), ‘토마토’(1999), ‘슬픈연가’(2005), ‘신의’(2012)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김희선은 40대 여배우로서 느끼는 벽, 동시에 갈수록 커지는 욕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걸 느끼죠. 40대 역함이 들어오더라도 연하남을 출릴 수 있을 만큼 외모도 능력도 매력적이어야 하는 캐릭터가 대부분이죠.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역함이 들어오면 좋지 않죠. 그만큼 겁도 나요. 쓸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용기 내서 작품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기소침해 좌절하고요. 그만큼 ‘폼위있는 그녀’가 잘돼서 정말 좋아요.”

그는 그러면서도 칭찬이 늘 고프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예뻐 보이고 싶고, 연기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요. 돌 중 하나만 고르기는 어려워요. ‘예쁜데 연기도 잘하네?’ 이런 칭찬 계속 듣고 싶어요. 수식어 욕심에 끝이 없어요.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성격도 솔직하니 좋고, 술도 잘 마시는 김희선. 아, ‘술도 잘 마시고’는 빼주실래요?” (웃음)

김희선은 최근 예능 나들이도 잦은 편이다. tvN ‘섬총사’에는 고정 출연 중이고, SBS TV ‘미운 우리 새끼’에도 특별 MC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예전에 제가 진행한 ‘화신’의 시청률이 높지 않았던 이후 오랜만에 많이 나가고 있다”며 “‘섬총사’는 (강)호동 오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 자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유부녀로서 이보다 안전한 외박이 있겠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당분간 계속 예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요새는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다”며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도 제가 TV에 자주 나오면 반응을 보이는 나이가 돼서 더 재밌다”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연합뉴스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 다음주 종영

시청률 35% 돌파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사진)가 종영을 한 주 앞두고 시청률 35%를 돌파했다.

2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한 ‘아버지가 이상해’ 50회는 전국 시청률 36.5%, 수도권 시청률 36.3%를 기록했다.

‘아버지가 이상해’는 지난 5월14일 22회에서 30%를 넘어섰으나 이후 석달 내리 30%대 초반에서 시청률이 맴돌았다.

이런저런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35% 선을 넘지 못해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전작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40회에서 35%를 넘어섰다.

이날 ‘아버지가 이상해’의 시청률 상승은 동시간대 KBS 1TV, MBC TV, SBS TV가 정규 프로그램 대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 - 대한민국, 대한민국’ 생중계를 한 반사이익으로 해석된다.

3월4일 22.9%로 출발한 ‘아버지가 이상해’는 이제 모든 갈들이 차례로 해소되고,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아버지(김영철 분)의 누명을 벗기는 일만 남았다.

후속으로는 박시후, 신혜선 주연의 ‘황금빛 내 인생’이 9월2일 시작한다.

한편, 20일 방송된 MBC TV 주말극 ‘당신은 너무합니다’와 ‘도둑놈 도둑님’의 시청률은 19.4%와 11.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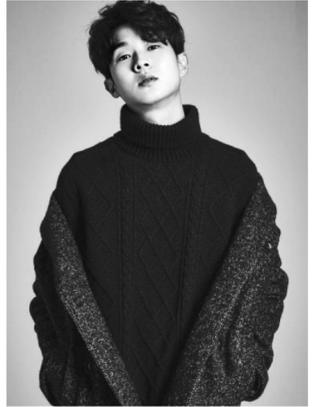
최우식, 영화 ‘마녀’ 주연 캐스팅

‘물괴’·‘궁합’ 등 활동 활발

배우 최우식(사진)이 영화 ‘마녀’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마녀’는 사고로 어릴 적 기억을 잃고 노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온 여고생 앞에 의문의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영화다. ‘신세계’, ‘대호’, ‘브이아이피’ 등을 연출한 박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영화 ‘부산행’, ‘옥자’ 등에 출연한 최우식은 현재 내년 개봉 예정작인 ‘물괴’를 촬영 중이며, 이미 촬영을 마친 ‘궁합’, ‘그대 이름은 장미’ 등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1대 100 (재)	30 시청자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행실계 (재)
1	00 제13회 현인 가요제 50 한국인의 밤상 (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수빈스토리 2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5 다큐 공감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5 별별머리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리인 40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10 MBC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그랜드파더>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을 스페셜	30 나이트리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덴마크, 행복을 드릴까요? 바이킹의 땅, 로스킬레>	09:40 성난 물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천발 오물렛과 옥수수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IDF 2017 <저스트 키즈:사피아의 여름> 12:30 EIDF 2017 <새들의 노래가 들려요> 12:40 EIDF 2017 <두뇌 혁명 A.I.> 14:00 EIDF 2017 <태아>(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미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맘스 08:00 당동명 유치원1~2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응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15 EIDF 2017 <가족의 탄생> 15:40 EIDF 2017 <저스트 키즈: 제세르와 사탕수수> 16:00 EIDF 2017 <와이 우먼2> 16:15 방귀대장 뽕뽕이 16:30 두다다쿵 16:45 당동명 유치원1~2 17:15 엄마 까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수산물 하역 작업> 20:50 세계테마기행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 - 파미르고원의 땅골 사이막>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더도 밀도 말고 이국 같아라> 21:50 EIDF 2017 <레이진 쇼> 23:15 EIDF 2017 <아흔 살 소녀 블랑슈> 24:25 EIDF 2017 <헤르보르 이야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음 7월 1일 辛巳)
子	48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60년생 남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72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84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하고 고쳐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40	42년생 대접 받을 일이 있다. 54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66년생 장소를 함께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78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 것을 알아야 한다. 90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37, 64
丑	49년생 탄력이 붙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61년생 화재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73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5년생 누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5, 37	43년생 국왕을 종횡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라. 55년생 뜻이 굳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67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 번 나를 뺀한 상황이다. 79년생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91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31
寅	50년생 절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안이 필요하다. 74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86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6, 24	44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56년생 참신한 기법이 성과의 가치를 드높이게 되는 국량이다. 68년생 결실이 의외로 미진하겠다. 80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5, 41
卯	51년생 햇대도 동지거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있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63년생 본인이 의도하는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75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87년생 잠산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1, 86	45년생 타산지적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57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25
辰	52년생 이것저것 따져보면 피차일반이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는 것이 생산적이다. 64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자질을 빛내지 않는다. 76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88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50	46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컸을 것이니라. 58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70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82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2, 53
巳	53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세이리라. 65년생 복잡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77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된다. 89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08, 07	47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 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59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대산 길이 쌓여있다. 71년생 취소되거나 연기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83년생 별다른 성과가 없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1, 44